

## 藥物의 配伍에 따른 基本方劑의 活用に 對한 文獻的 考察

尹 用 甲\*

### 〈目 次〉

- I. 緒 論
- II. 本 論
  - 一. 藥物의 七情 配伍에 따른 基本方劑의 活用
  - 二. 藥物의 配伍에 따라 變化되는 本草의 主效能과 基本方劑
  - 三. 藥物의 配伍에 따른 方劑의 變化
- III. 考 察
- IV. 結 論
- 參考文獻

### I. 緒 論

東醫寶鑑 및 醫學入門에 收錄된 處方類는 약 「4,000 餘方에 이르고<sup>1,2)</sup> 方藥合編에는 560 餘方이」 收錄되어 있으며 古今醫方集成<sup>3)</sup>과 더불어 最近 약 12,000 餘方을 收錄한 方劑學辭典<sup>4)</sup>이 出刊되었으며 統計的으로는 6~7 萬 餘方의 方劑들이 臨床에 活用되고 있다고 한다<sup>5)</sup>.

이와같이 수 많은 方劑들을 辭典式이나 病名別로 分類하고 일일이 記憶하여 臨床에 適切히 活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先賢 各醫들도 “師其法而不泥其方”<sup>6)</sup>이라 하여 理論과 法則은 배우고 본받을지언정 그 處方에만 집착하지 말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概成 方劑들이 아무리 수가 많고 複雜하게 構成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立方의 原理와 方劑構成 原則 및 構成藥物들의 配伍關係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系統性和 聯關性を 확립하게 되면, 複雜하고 수 많은 概成方들도 不過 몇가지 藥物로 구성된 基本方劑에서 出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누구나 쉽게 理解하며 그 만큼 活用性도 높아질 것이다.

거의 모든 方劑들은 두가지 藥物의 配伍關係인 最少 單位의 方劑로부터 出發하여 3~4 가지 藥物의 君臣佐使法에 根據하여 基本方劑로 發展하게 되며 여기에 加減法이나 加味法을 通하여 變方이 成立되고 또한 基本方들이 合하여져서 復方으로 變化되게 된다. 이와같은 過程을 通하여 수 많은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方劑學教室

概成方들이 創方되어 臨床에 活用되었고 그 記錄이 지금까지 傳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著者는 두가지 藥物로 構成된 方劑들을 中心으로 하여 方劑構成 原理의 基礎가 되는 藥物의 七情 配伍와 藥物의 配伍에 따른 本草의 主效能 및 方劑의 變化 등을 文獻적으로 調査하고 研究하여 概成處方の 構成原理로 파악하고 活用法을 理解하여 方劑의 系統性 및 聯關性을 確立하여 疾病의 治療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 本 論

### 一. 藥物의 七情 配伍에 따른 基本方劑의 活用

七情 配伍라 함은 두가지 藥物들이 서로 配合될때 나타날 수 있는 藥物의 作用關係를 말하며 <神農本草經>에서는 “七情合和”라 하여 單行, 相須, 相使, 相惡, 相畏, 相反, 相殺 등을 列擧하고 있다.

예를 들면 麻黃이 溫經 通絡하는 桂枝와 配伍되면 發汗作用이 麻黃 한가지만 單行으로 使用했을때 보다 더욱 強해지고<sup>13, 20, 21)</sup>, 麻黃이 寒涼한 石膏와 配伍되면 發汗作用이 弱화되고<sup>19)</sup>, 麻黃이 順氣 理氣시키는 烏藥과 配伍되면 順氣 覺醒作用(烏藥順氣散)이 나타나며, 麻黃이 杏仁과 配合되면 止咳 平喘作用이 더욱 強化되게 된다<sup>7, 20, 21)</sup>. (麻黃湯), (三拗湯)

또한 “大黃非枳實而不下, 非芒硝而不泄”이라 하여 大黃이 枳實을 만나야 消痞 消滯作用이 잘 나타나고, 芒硝를 만나야 泄下作用이 強化될 수 있다고<sup>8, 9, 10)</sup> 하였다. 한편 大黃과 黃連이 配合되면 瀉心火하는 作用이 나타난다<sup>11)</sup>. (瀉心湯)

이와같이 同一한 藥物이라도 配伍되는

藥物에 따라서 藥效의 變化와 作用의 變化가 생길 수 있는 關係를 說明한 것이 七情 配伍이다. 따라서 두가지 藥物로만 構成된 方劑를 中心으로 七情 配伍關係를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單行으로 活用되는 方劑

한가지 藥物만으로써, 다른 藥物의 配伍 없이, 主治나 主病에 使用되는 경우이며, 주로 單味の 本草學의 氣味를 그대로 活用하는 경우가 되며 病勢가 複雜하거나 急하게 變하는 경우는 應用이 적은 편이며, 民間療法이나 自然療法으로도 轉換된 경우가 많다.

#### 2) 相須에 關係되는 基本方劑

相須 配伍라 함은 藥物의 氣味 藥性이 비슷한 藥物이 서로 配合되어 藥效가 相乘되거나 相加作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配合關係를 말하며 方劑를 構成할때 가장 많이 活用되고 있다.

相須 配伍가 되는 基本方劑 例를 <表 2>에 조사하여 보았다.

#### 3) 相使에 關係되는 基本方劑

두가지 藥物이 配伍될때 한 藥物이 다른 藥物의 主作用을 補助하는 配合關係를 말하며 두가지 藥物은 서로 主從關係를 이루며, 主藥의 效果를 上昇시키거나 增大시키기 위하여 配合되는 경우로써 方劑構成에 相須와 더불어 많이 活用되는 편이다. 相使에 活用된 基本方劑 例를 조사하여 <表 3>에 정리하였다.

#### 4) 相畏, 相殺에 關係되는 基本方劑

두가지 藥物이 配合될때 相對 藥物로부터 藥效나 性味에 영향을 받거나(相畏), 혹은 相對적으로 配合된 藥物에 對하여 性味나 效能에 制約을 미치게 하는 配合關係(相殺)

藥物的 配伍에 따른 基本方劑의 活用に 對한 文獻的 考察

〈表 1〉 單行處方の 活用例

配伍種類	藥物名	主效能	用量	處方名	主治	비고
單行	1) 人參	補元氣 溫經回陽	一兩 ~六兩	獨參湯	治氣虛 血脫	用量的 增加로 藥效強化
	2) 鹿茸	生精補水, 治腰腎虛冷	一兩	單鹿茸湯	難產最奇	胞系於腎以此補 腎連服
	3) 荆芥	祛邪風瘡, 止痛	二戈	荆芥散	血暈如神	童便一盞 調服
			三戈	愈風散	治產後中風	(一名 舉鄉古拜散)
	4) 橘皮	理氣和脾	一兩	橘皮一物湯	治氣結	新及水 煎服
	5) 蘇木	活血祛瘀	二兩	小參蘇飲	產后 敗血 入肺 發喘 面黑	
6) 大甘草	和諸藥, 瀉火	一兩	國老膏	活懸癰		

〈表 2〉 相須配伍된 基本處方の 活用例

配伍種類	構成藥物	配伍比率	處方名	主治	비고
相須	1) 枳實:白朮	1:2 (一兩:二兩)	枳朮丸	治痞消飲 健脾消痞	
	2) 藿香:陳皮	1:1 (5戈:5戈)	回生散	治霍亂, 吐瀉	
	3) 丁香:白豆久	1:1 (各等分)	神香散	治嘔吐脹滿 痰飲膈噎	
	4) 生薑:橘皮	2:1 (8兩:4兩)	生薑橘皮湯	治乾嘔 手足麻冷	
	5) 香附子:白茯苓	4:1 (1斤:4兩)	交感丹	治諸氣鬱滯 能水火升降	
	6) 浦黃:五靈脂 (炒)	1:1 (各等分)	失笑散	治產後兒枕 臍腹痛欲死	
	7) 山藥:黃米 (炒) (炒)	(一兩:一合)	實腸散	治久痢 不分赤白 用此 換出 黃糞	
	8) 白芷:貝母	1:1 (各等分)	芷敗散	治乳房結核	
	9) 熟地黃:兔絲子	1:1 (各 8兩)	雙補丸	平補氣血, 不燥不熱	
	10) 鹿茸:附子炮	1:1 各 2.5戈)	茸附湯	治氣精血 虛耗 潮熱 盜汗	
	11) 烏藥:益智仁	1:1 (各等分)	縮泉丸	治脾氣不足 小便頻數 一日百餘次	
	12) 甘草:黑豆	1:1 (各 5戈)	甘豆湯	解百藥 百物毒	
	13) 梔子:豆豉	七枚:半合	梔豉湯	治汗下後 虛煩不眠	
	14) 當歸:川芎	1:1 (5戈:5戈)	芎歸湯	治產前後諸疾, 血崩不止	

藥物の 配伍에 따른 基本方劑의 活用に 對한 文獻的 考察

로써 주로 毒性이나 藥力이 峻烈하여 그냥 活用하면 副作用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活用하며 修治나 法制할때 많이 應用한다.

5) 相惡, 相反

配合되는 相對 藥物들이 서로 相互間의 藥效를 빼앗아 無效화시키거나, 새로운 副作用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로, 方劑構成에서는 일반적으로 活용이 드문 경우가 많다.

6) 藥物配伍의 基本作用

藥物의 配伍關係를 作用面에서 考察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 相互 協助作用을 한다. (相須, 相使)  
藥物 相互間의 主效能에 대한 相乘 相加作用을 나타내는 경우.

㉡ 相互調節 및 相制作用을 한다.

藥物의 相互 寒熱, 升降, 動靜, 補瀉, 氣血, 收散, 剛柔, 潤燥 等の 相對的인 效果를 갖고

〈表 3〉 相使配伍에 活용되는 基本處方의 活用例

配伍種類	藥物構成	配伍比率	處方名	主治	비고
相	1) 桔梗:甘草	7:3 (3.5戈:1.5戈)	甘桔湯	治少陰客寒咽痛	
	2) 石膏:知母	5:2 (5戈:2戈)	白虎湯	治陽明經痛 汗多 煩渴 脈洪大	
	3) 芍藥:甘草炙	2:1 (4戈:2戈)	芍甘湯	平肝止痛 緩急 治一切腹痛	
	4) 黃芪:當歸	5:2 (5戈:2戈)	當歸補血湯	治氣虛 血脫	
使	5) 大附子:生薑	半枚:十片	冷附湯	瘧疾無過 是疾實 脾弱停干胸膈	
	6) 大黃:芒硝	2:1 (4戈:2戈)	調胃承氣湯	治痞滿燥實 瀉熱結下燥屎	
	7) 黃連:木香	4:1 (一兩:2.5戈)	香連丸	治赤白膿血下痢 脹痛 及 諸痢	

〈表 4〉 相畏 相殺에 活용되는 基本處方의 活用例

配伍種類	藥物構成	構成比率	處方名	主治	비고
相畏	半夏:生薑	一升:半斤	小半夏湯	治飲停心下 嘔吐不渴 心下痞悶	
	滑石:甘草	6:1 (六兩:一兩)	六一散 天水散, 益元散	治中暑 吐瀉不痢 止渴 除煩 解百藥 酒食邪毒	
相殺	黃連:附子	6:1 (六兩:一兩)	連附六一湯	治熱鬱 胃胸痛	
	山梔子:附子炮			治疝氣	

있는 藥物들을 配合하여 서로를 調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相畏, 相殺)

㊸ 作用을 轉換시킨다.(他變作用)

두가지 藥物이 配合될때 전혀 새로운 作用으로 方向이 轉換되어 나타나는 藥效를 利用하는 경우, 方劑에 活用되는 例를 들면 黃芩과 白朮이 配合되어 安胎作用을 하는 古芩朮湯이나, 芍藥과 甘草가 配合되어 鎮痛, 鎮痙에 基本方인 芍藥甘草湯이 있다.

㊹ 引經作用

配合되는 藥物에 따라 主治나 主效能을 病所나 發病部位에 效果의 作用케 하는 경우.(少陽經病에는 柴胡)

二. 藥物의 配伍에 따라 變化되는 本草의 主效能과 基本方劑

어떤 藥物이 갖고 있는 本草學的 主治作用이나 主效能은 상당한 多樣性이 있으며 書誌學的인 측면에서 보면 歷代 本草書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記錄하고 있어서, 어느 時代 어떤 書籍을 참고하여 그 藥物을 活用하느냐에 따라 치료에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

한편 어떤 藥物을 單味로 治療에 活用하는 경우가 드물고 方劑를 通하여 處方으로 使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藥物相互間의 配伍가 어떻게 基本單位가 되어 方劑로 연결되며, 이러한 基本 配伍 單位(基本方劑)가 어떤 方劑의 加減法이나 加味法에 따라 다른 處方으로 變化되는가 하는 과정을 파악하고 研究하는 것은 方劑學의 基礎를 확립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수많은 方劑에 대한 올바른 理解와 臨床活用に 確實한 根據를 提示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많은 關心과 研究가 必要하다고 본다. 이에 著者は 甘草와 香附子를 中心으로 配伍되는 藥物에 따라 變化되는 本草의 主效能 및 方劑의 主治作用 등을 文獻的으로 調查하여 發表하는 바이다.

〈表 5〉 甘草配伍를 中心으로한 基本方劑와 甘草의 主效能 변화

配伍 藥物	構成比率	處方名	主治	甘草의 作用	비고
滑石:甘草	6:1 (6兩:1兩)	六一散, 天水散 益元散	解暑清熱, 吐瀉解毒	解暑清熱 作用을 主로 하는 滑石의 寒滑한 性을  완화시킴	
桔梗:甘草	7:3 (35戈:15戈)	甘桔湯	清利 咽喉疼痛	桔梗의 咽喉 清熱祛痰 作用을 助하여 清熱 瀉火	同甘草爲 舟楫之劑
芍藥:甘草 (炙)	2:1 (4戈:2戈)	芍甘湯	治一切腹痛	芍藥의 平肝舒筋하는 作用과, 甘草의 緩急止痛이 合하여 鎮痛 鎮痙의 基本方	
黑豆:甘草	1:1 (各等分)	甘豆湯	解百藥毒	解毒作用強化	
夏枯草:甘草	6:1 (6戈:1戈)	夏枯草散	治療瘡	治癰疽癰瘡 強化	
人蔘:黃芪: 甘草(炙)	2:1:1 (2戈:1戈:1戈)	保元湯	治氣虛痘疹	溫補益氣作用	
浮少麥:甘草		甘麥大棗湯	治婦人棗燥症	安神 鎮靜作用	

1) 甘草의 配伍를 中心으로

〈表 5〉의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甘草와 配伍되는 藥物에 따라 甘草의 作用도 상당한 變化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六一散에서는 滑石의 寒滑한 作用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甘桔湯에서는 清熱瀉火하는 方向으로, 芍藥甘草湯에서는 緩急止痛하는 方向으로, 甘豆湯에서는 解毒 및 中和하는 方向으로, 夏枯草散에서는 癰疽로 治하는 方向으로, 保元湯에는 黃芪, 人蔘과 더불어 補益하는 方向으로 草의 藥效가 變化됨을 관찰할 수 있다.

2) 香附子의 配伍를 中心으로

香附子は 開鬱調經하는 目的으로 많이 쓰이는 藥物이지만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配伍되는 藥物에 따라 그 藥效로 方向을 달리하는 觀點을 高찰할 수 있다. 즉 四製香附丸이나 七製香附丸에서 法製와 修治로 적당히 하여 調經하는 方向으로 活用되는 香附子가 川芎과 配伍되면 止血하고 蒼朮蘇葉 等과 配伍되면 理氣解表하고

良薑과 配伍되면 止痛散寒하고, 白茯苓과 配伍되면 開鬱安神하고 黑丑, 五靈脂와 配伍되면 消痞하는 方向으로 主作用에 轉換됨을 살펴볼 수 있다.

三. 藥物的 配伍에 따른 方劑의 變化

1) 芍藥甘草湯을 中心으로

芍藥甘草湯은 원래 原典(傷寒論)의 記錄으로 보면 脚縮을 伸하는 方劑인데 芍藥의 和陰調榮하고 平肝舒筋하는 作用과 甘草의 緩和作用을 相調하여 一切疼痛에 活用하는 基本方이다. 그런데 이 芍藥甘草湯이 配伍되는 藥物이나, 加味되는 處方에 따라 대체적으로 3가지 方向으로 變化가 가능함을 考察해 볼 수가 있다.

첫째는 芍甘湯에 清熱瀉火하고 治痢하는 黃芩이 君藥으로 配伍되면 痢疾腹痛의 基本方인 黃芩芍藥湯으로 變方되어 實證의 急痢에 活用되며 여기에 加味되는 藥物에 따라 后世方으로 導滯湯이나 當歸芍藥湯으로 變化가 되어 治痢에 活用되는 方向이

〈表 6〉 香附子 配伍를 中心으로한 基本方劑와 香附子의 主效能 變化

藥物 配伍	構成比率	處方名	主治	香附子의 作用	비고
香附子		四製香附丸	月候不調	調經	四製 ①干汗 監水 浸炒 ②童便 浸 ③醋炒 ④山梔子 同炒
		七製香附丸	結成癥瘕	調經, 散癥	
香附子: 川芎	2:1 (4兩:2兩)	莎芎散	治衄血	止血	粉末二戈茶清 調下 不以時
香附子: 蘇葉 : 蒼朮	4:4:3 (2戈:2戈:1.5戈)	香蘇散	治四時傷寒 頭身痛 寒熱 傷風傷濕	理氣 解表	
香附子: 良薑	1:1 (各等分)	良附丸	理氣散寒止痛	理氣止痛	
香附子: 白茯苓	4:1 (1斤:4兩)	交感丹	治諸氣鬱滯 能水火升降	開鬱 理氣	蜜丸 彈子大
香附子: 黑丑 : 五靈脂	1:2:1 (1兩:2兩:1兩)	消滯丸	治酒食水氣痞滿脹 腫積痛	消滯 消痞 脹滿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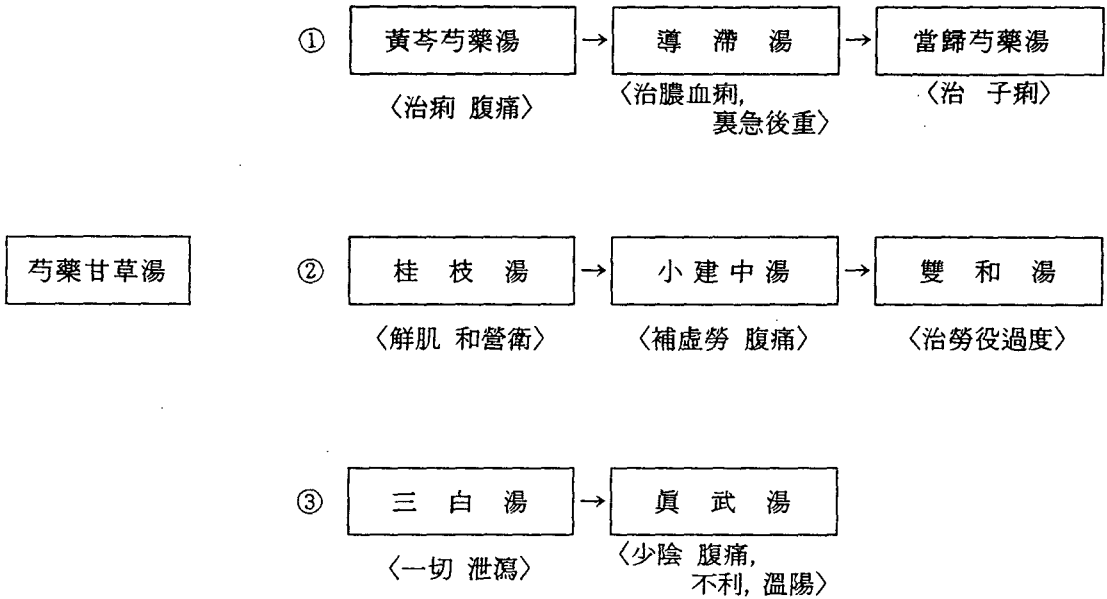
두번째는 芍甘湯에 溫經通絡하고 發汗解表하는 桂枝를 爲君으로 하고 여기에 生薑을 助하고 大棗를 佐使로 삼으면 發汗解肌하고 營衛를 調和하는 桂枝湯이 되며 桂枝湯에서 補陰和血하는 芍藥을 倍로 하고 台糖(膠糖, 黑糖)을 爲君으로 하며 虛勞疾患에 活用하는 小建中湯이 되며, 自汗이 있어 黃기를 配伍하면 黃기建中湯이 되고, 黃기建中湯에

서 台糖을 去하는 대신 四物湯을 合方하면 雙和湯이 되어 調和營衛하고 補陰血에 活用되는 方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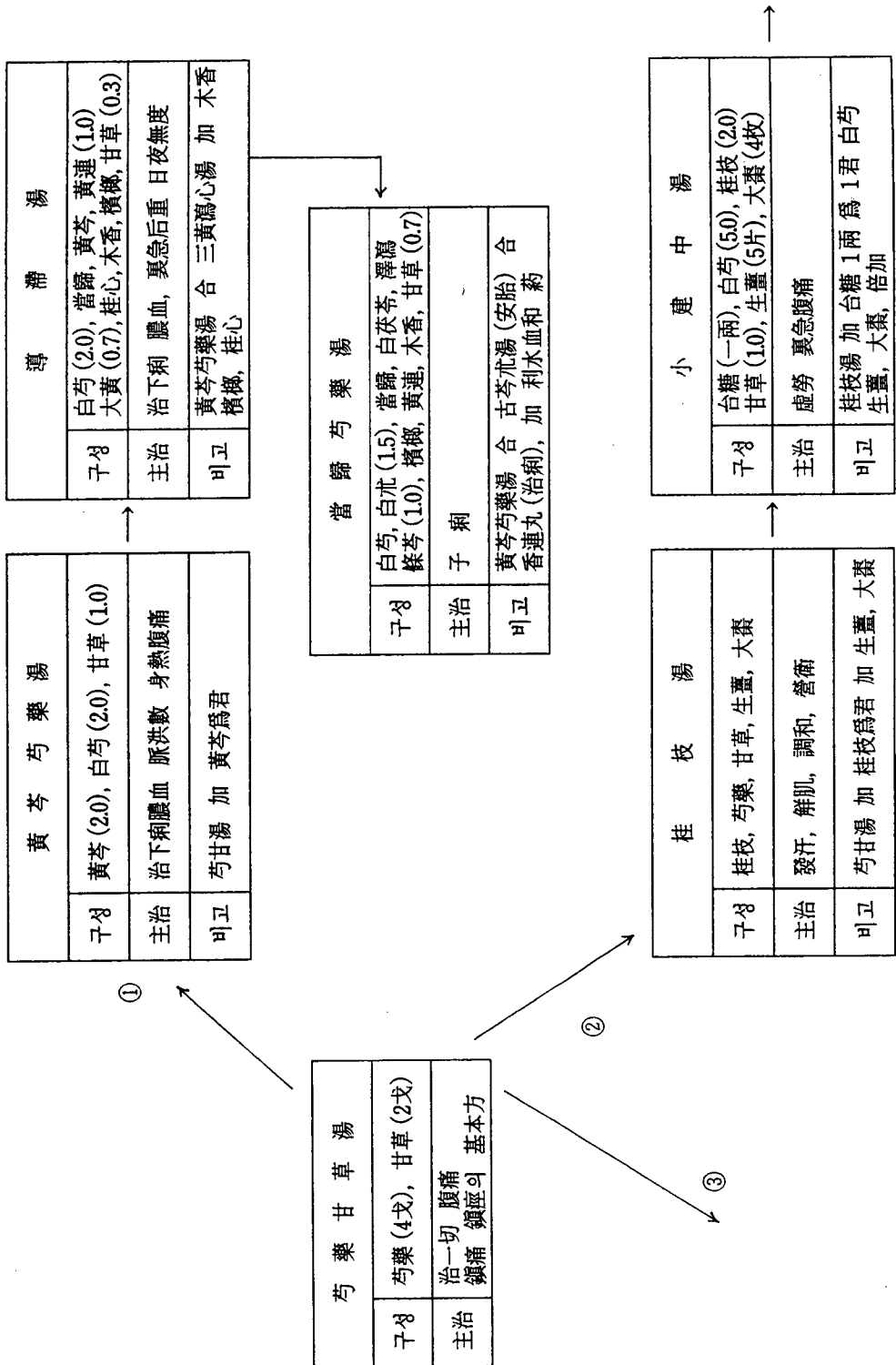
세번째로는 芍甘湯에 利水滲濕하는 白朮 白茯苓을 配伍하여 一切泄瀉를 治하는 三白湯으로 活用되는 方向이 있다.

이와같이 3가지 方向으로 變化되는 것을 <表 7>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表 7-A> 芍藥甘草湯의 藥物配伍에 따른 方劑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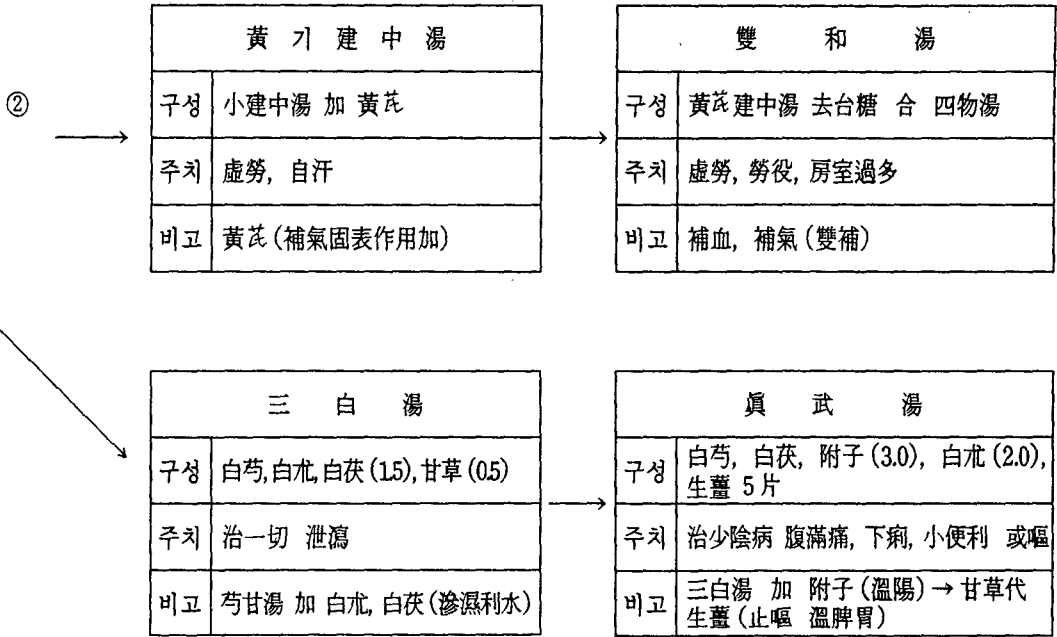


〈表 7-B〉





藥物の 配伍에 따른 基本方劑의 活用に 對한 文獻的 考察



III. 考 察

藥物の 配伍關係에서 單行은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藥量이 一般的인 常用量 보다는 대단히 많게 增大시켜서 (一兩에서 六兩까지) 使用한 경우가 많았고 藥物の 여러가지 主治나 主效能中에서 特定한 主治作用이나 主效能만을 治療에 活用한 것이 特徵이다.

相須者 同類而不可離 常用 相須者 良<sup>12)</sup> 이라 하여 相須란 같은 종류의 藥物로 配伍되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인 연관 關係에 있고 相須를 處方에 活用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하였듯이 氣味와 藥性, 主治 등이 비슷한 두가지 藥物을 配伍하여 藥效나 主治作用을 強化시킨 配合이기 때문에 항상 基本 方劑構成에 活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藥物

相互間의 配伍比率는 1:1인 경우가 많고 配伍量도 等分이거나 同量인 것이 特徵이다.

相使란 我之佐使라<sup>11,12)</sup>하여 두가지 藥物이 主從關係로 配合되어 主藥에 대한 治療作用을 配合되는 補助藥이 도와서 協力하므로 그 治療效果를 上升시키거나 增大시켜주는 配合이므로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配伍比에 있어서도 主藥과 補助藥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相畏者受彼之制也, 相惡者奪我之能也, 若有毒宜制, 可用相畏者<sup>11,12)</sup>라 하여 相對的으로 配合되는 藥物의 效果를 서로 制約하는 경우로 例를 들면 半夏의 峻熱한 燥性과 毒性을 生薑汁이 解毒시키고 緩和시켜서, 燥濕 祛痰作用이 人體에 무리가 없도록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代表的인 基本方劑는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小半夏湯, 二陳湯 등이 있다.

한편 六一散은 滑石과 甘草가 6:1로 配合된 處方으로써 滑石의 寒滑한 藥性이 여름철의 煩渴 吐瀉下痢 暑毒等의 治療에 主作用을 하지만 滑石의 寒滑한 性味는 또한 生體의 陽氣(溫氣)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性味가 溫한 甘草를 少量 配合하여 副作用이 없으면서도 원활한 治療作用을 할 수 있도록 構成되어 있다<sup>14)</sup>.

이와같은 例는 連附六一湯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相畏 相殺은 한 藥物의 독특한 個性이나 主作用을 人體에 害가 없도록 順化시키거나 副作用이 적도록 緩和시켜서 活用하는 例가 대부분이다.

方劑構成의 基本原理中 가장 重要한 부분은 藥物의 相互作用이다. 즉, 藥物이 서로 配伍될때 생기는 藥效의 變化인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파악될때 많은 藥物로 構成된 方劑의 藥效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甘草를 中心으로 2가지로만 構成된 藥物을 조사하여 甘草의 作用을 主治와 연관시켜서 考察해 보면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六一散에서는 滑石의 作用을 緩和시켜주는 作用을 나타내며, 甘桔湯<sup>16)</sup>에서는 桔梗의 清熱 瀉火作用을 助하고 芍藥甘草湯<sup>17)</sup>에서는 芍藥의 收하는 作用과 甘草의 緩하는 作用이 서로 調節되어 鎮痛 鎮痙하는 새로운 作用을 나타내며 甘豆湯<sup>15)</sup>에서는 黑豆의 解毒作用을 強化시키는 作用을 하며, 夏枯草散에서는 夏枯草와 더불어 甘草의 癰疽를 治하는 作用을 強하게 하며, 甘麥大棗湯에서는 甘草가 浮小麥과 더불어 安神 鎮靜하는 作用을 하며<sup>18)</sup>, 保元湯에서는 黃耆, 人蔘과 같이 補益元氣하는 作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한편 香附子도 配伍되는 藥物에 따라서 香附子의 藥性이 變化됨을 관찰할 수 있다. 즉,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單味로는

주로 開鬱調經하는 作用을 하지만 香附子와 川芎이 2:1로 配伍되면 莎芎散<sup>15)</sup>이라 하여 血을 治하는 處方이 되고, 香附子가 蘇葉, 蒼朮, 陳皮와 더불어 理氣 解表하는 藥物等과 配伍되면 自律神經 調節의 不調和로 생기는 四時 傷寒感冒에 活用되는 香蘇散<sup>15)</sup>이 되고, 香附子와 白茯苓이 4:1로 配伍되면 諸氣鬱滯를 治하는 交感丹<sup>15)</sup>이 되는데 香附子는 白茯苓과 같이 理氣 開鬱 作用을 한다. 또한 香附子가 黑丑, 五靈脂等과 配伍되면 破積消脹에 活用되는 消帶丸<sup>15)</sup>이 되는데, 이때 香附子는 消痞 消滯하는 作用을 한다.

이와같이 甘草와 香附子가 配伍된 基本方에서 主治와 연관시켜서 配伍된 甘草나 香附子의 藥理作用은 配伍되는 藥物에 따라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治療에 實際적으로 투여되는 方劑를 中心으로 配伍되는 藥物에 따른 藥效를 규정하는 研究도 대단히 重要한 意味를 갖고 있다고 思料된다. 이것이 확립될 때만이 方劑에 대한 올바른 方解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方劑가 配伍되는 藥物에 따라서 일정한 連系性과 系統性을 갖고 變方이 이루어짐을 관찰할 수 있다. 芍藥甘草湯을 例로 들면 <表 7-A>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로 大別하여 變方이 됨을 考察해 볼 수가 있는데, 첫번째는 芍藥甘草湯에 清熱 瀉火하고 治痢效果가 있는 黃芩을 君藥으로 2戈를 配伍하면 黃芩芍藥湯으로 變方이 되며 이 方劑는 治痢 腹痛의 基本方이다. 이 黃芩芍藥湯<sup>15)</sup>에 三黃瀉心湯과 木香 檳榔 當歸 桂心을 配伍하면 裏急後重하고 膿血이 섞인 痢疾에 活用하는 基本方인 導滯湯<sup>15)</sup>으로 變方이 되며, 導滯湯에서 三黃瀉心湯을 去하고 安胎시키는 古芩朮湯과 滲濕利水시키는 茯苓 澤瀉를 配伍하면 妊娠婦의 痢疾에

活用하는 當歸芍藥湯<sup>15)</sup>으로 變方된다.

두번째는 泄瀉에 活用되는 경우로 芍藥甘草湯에 健脾燥濕하는 白朮과 滲濕利水하는 白茯苓을 配伍하면 三白湯<sup>15)</sup>으로 變方이 되어 一切泄瀉에 活用하는 方劑가 된다. 三白湯에서 甘草를 去하고 下焦를 回陽시키는 附子, 生薑을 配伍하면 眞武湯<sup>15)</sup>으로 變化되어 少陰病의 下痢, 腹痛의 基本方이 될 수가 있다.

세번째는 芍藥甘草湯에 溫經通絡하고 解肌作用이 있는 桂枝, 生薑과 營血을 助하는 大棗를 配伍하면 桂枝湯으로 變方되며 桂枝, 生薑은 發汗 解表하여 衛氣를 行하게 하고 芍藥과 大棗는 營血를 和하게 하며 甘草는 營衛가 잘 調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 전체적으로 桂枝湯은 發汗 解表하고 調和 營衛하는 基本方劑가 될 수 있다.

한편 桂枝湯에 台糖(膠糖)을 爲君으로 하여 一兩을 配伍하고 芍藥을 倍로 하면 虛勞 裏急腹痛의 基本方인 小建中湯<sup>15)</sup>으로 變方이 되며, 여기에 自汗이 甚하면 黃기를 配伍하여 黃芪建中湯<sup>15)</sup>으로 變方시켜서 活用하며 다시 여기에 四物湯을 合方하면, 氣血俱傷하고 勞役이나 犯房으로 因한 虛勞나 大病後 氣虛하고 自汗을 治하는 雙和湯<sup>15)</sup>으로 變方된다.

지금까지 芍藥甘草湯을 中心으로 藥物의 配伍에 따라 變化되는 方劑의 相關性を 考察해 보았다. 芍藥甘草湯을 基本方으로 하여 그 系統性과 連系性を 만들어 보면 3가지 系統에 9가지 連系方의 體系를 도입시킬 수가 있었으며 이 方劑들은 서로 유기적인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基本方劑의 系統性과 連系性を 確立시키는 것은 方劑學 研究의 重要한 方向중의 하나가 될 것이며, 수 많은 方劑들을 體系의으로 理解할 수 있는 確

기적인 方法論이 될 것이라 思料된다.

#### IV. 結 論

藥物의 七情 配伍, 藥物 配伍에 다른 藥效의 變化와 方劑의 變方의 研究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藥物의 七情 配伍는 方劑構成의 基礎單位가 된다.
2. 藥物은 相互 配伍되는 方式에 따라 多様な 藥效의 變化를 가져온다.
3. 方劑의 變化는 配伍되는 藥物에 따라 一定한 系統性과 連系性を 갖고 있다.

#### 參考文獻

1. 趙永鎬：醫學入門檢方 1980, 서울, 금강출판사, p.1-174.
2. 盧永得外 6人：東醫寶鑑索引 1988, 서울, 고려의학, p.1-114.
3. 吳克潛：古今醫方集成, 中華民國 25年 1980, 서울, 成輔社, 影印本 p.1-4.
4. 江克明外：簡明方劑學辭典 1989, 中國上海科學技術出版社, p.1-11.
5. 金完熙外：臟腑辨證論治 1985, 서울, 成輔社, p.388-391.
6. 龍榮輯：方劑學 1986, 中國 遼寧科學技術出版社, p.9-10.
7. 康舜洙外：方劑學 1979, 서울, 癸丑文化社, p.52-55.
8. 蘇庚英：中醫臨床常用對藥配伍 1984,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90-91.
9. 上海中醫學院 方劑學教室 編, 中醫方劑臨床手冊 1984, 中國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271-272.

10. 陳維述外：藥對論 1984, 南京, 安徽科學技術出版社, p.123-124.
11. 李時珍：本草綱目 1982,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115-1119.
12. 神農本草經, 中華民國 69年,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p.313-
13. 天真處方解說 1987, 서울, 成輔社, p.356-357.
14. 游士勳：實用中醫方劑學 中華民國 72年, 臺北, 樂群出版公司, p.95-96.
15. 黃度淵：脈證方藥合篇 1986, 서울, 南山堂, p.128, 136, 155, 173, 177, 203, 208, 209, 216, 219, 247, 262, 263, 269.
16. 李載熙：圖說漢方論療要方 1987, 서울, 醫學研究士, p.98-99.
17. 張仲景：傷寒論, 中華民國 63年, 臺北, 台聯國風出版社, p.121-122.
18. 邢錫波：傷寒論臨床實驗錄 1984, 中國, 天津科學技術出版社, p.254-255.
19. 許鴻源：圖解常用漢方方劑 1980, 臺北, 華安出版社, p.2-3.
20. 成都中醫學院中醫方劑教研組：中醫各科治法與方劑, 香港, 醫林書局, p.34-35.
21. 李大琦：中醫方劑學, 成都, 1988, 四川科學技術出版四, p.24-25, 32-33.